



박찬호

“예쁜 딸 낳으니 책임감 더 커져”

“올 시즌 목표는 100도루와 OPS 0.700”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득녀(得女) 소식을 말한 KIA 타이거즈 박찬호(27)는 ‘책임감’도 이야기했다. 최근 박찬호는 팬들에게 ‘득녀’라는 깜짝 소식을 전했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박찬호는 지난 2019년 혼인 신고를 마친 유부남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던 박찬호는 지난 5일 결혼 3년 만에 예쁜 딸을 얻었다. 박찬호는 결혼과 출산 소식을 동시에 전하면서 팬들을 놀라게 했다. 박찬호는 “기분은 말로 표현 못할 것 같다. 딸이 너무 예쁘고 좋는데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 이 정도로 닳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나를 너무 많이 닳았다”고 웃음을 터트렸다. 이제가 환하게 웃지만 그동안 박찬호는 애도 태웠다. 박찬호는 지난 6월 8일 LG전에서 홈런을 친 뒤 ‘깃병 세리머니’를 선보였다. 아내 이하얀씨와 아기에 보내는 세리머니였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임신 소식을 전하지는 못했다. 한 차례 유산이라는 아픔을 경험했던 만큼 조심스럽기도 했고, 유독 약골이 시달리는 선수이기도 해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망설였다. 조심스럽게 아기를 만날 날을 기다렸던 박찬호는 아내가 조산기로 입원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예정보다 일찍 아이를 만나게 됐지만, 다행히 아기와 산모 모두 건강했다. 박찬호는 “건강하게 아이를 낳아준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하다. 남은 인생 딸을 위해 살겠다”며 “내가 너무 복 받은 사람이라고 느낀다. 애 낳고 경기장에 와서 땀 흘려 나가는데 관중석에서 ‘야호(태명) 아빠’라는 소리가 들렸다. 팬들이 많이 축하해주셨다. 그 소리가 커서 가슴이 쩡했다”고 말했다.

가장으로서 또 팀의 내야를 책임지고 있는 선수로 박찬호는 더 큰 책임감을 안고 땀 생각이다. 박찬호는 “늘 책임감을 가지고 뛰기는 했지만 ‘분유버프’라고들 말하는데, 그것 때문이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더 잘 되는 것 같다. 잘할 때가 된 것도 같다”며 “지금 몸은 많이 힘들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렇게 힘들면 성적이 하락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확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경험인가?’라고 생각하게 된다. 내가 한 뼘 더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시즌에도 강렬했던 순간은 있었다. 하지만 ‘꾸준함’이 숙제였지만 많은 시간 경기를 소화하면서 축적한 경험은 올 시즌 큰 자산이 됐다. 박찬호는 “시즌 치르다 보면 컨디션 안 좋은 날이 더 많다. 타격감이 정말 좋다고 느끼는 날은 많지 않은데 좋지 않을 때 치는 방법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 안 좋을 때 극복하는 힘이 생겼다. 어떻게든 하나씩 안타 치고, 볼넷으로 나가고 있다”며 “안 좋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알게 된 것 같다. 경험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 같다. 생각 자체가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빠른 공에 대한 두려움도 지웠다. 박찬호는 “올해는 타이밍이 좋다. 예전에는 구속 145km 넘어가면 못 쳤는데 빠른 볼에 대처가 된다. 올 시즌 투구 가운데 정말 위력적이라고 느낀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 같다. 투심이 매우 좋거나 변화가 심한 선수를 보면 까다롭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 구속에 주눅 드는 게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더 커진 책임감으로 남은 시즌에 나서는 박찬호는 일단 ‘100도루’와 ‘OPS 0.700’을 목표로 삼았다. 박찬호는 “이제 8개 남았다. 통산 100도루를 우선 달성하고 싶고, OPS(장타율+출루율) 0.700을 넘기고 싶다”며 “올해 경기 많이 빼졌는데 지금부터 한 경기도 안 빠지고 뛰되 팀에 보탬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훈련해보니 기량 놀라워”...손흥민, 히샤를리송 칭찬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의 ‘골잡이’ 손흥민(30)이 올여름 팀에 합류한 브라질 출신 공격수 히샤를리송(25·브라질)을 칭찬했다. 손흥민은 8일(현지시간) 영국 지역 매체 풋볼 런던과 인터뷰에서 “이번 프리시즌 기간 내내 히샤를리송과 함께 훈련했는데, 놀라운 기량을 보유한 선수였다”고 말했다. 지난 시즌까지 에버턴에서 뛰며 152경기에서 53골 14도움을 올린 히샤를리송은 지난달 토트넘과 2027년까지 계약하며 손흥민의 동료가 됐다. 전방 압박이 뛰어나고 속도, 활동량 등 운동능력을 비롯해 체력, 피지컬까지 두루 갖춘 히샤를리송은 올 시즌 손흥민, 해리 케인과 함께 스리톱을 꾸릴 자원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는 지난 시즌 경기 중 관중석으로 조명탄을 던

진 일로 징계를 받아 사우샘프턴과 2022-2023시즌 개막전에는 뛰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스웨덴 출신 원어 데얀 쿨루세브스키가 사우샘프턴전에 1골 1도움을 맹활약하며 공격력 간 경쟁에도 불을 지폈다. 손흥민은 “경쟁은 언제나 좋은 일”이라며 “히샤를리송과 함께 뛰는 걸 진심으로 즐기고 있다. 그와 경쟁을 통해 나도 항상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흥민도 이 경기에서 센터백 에릭 다이어의 득점을 도우며 새 시즌을 기분 좋게 출발했다. 쿨루세브스키, 다이어, 라이언 세세농 등의 활약에 힘입은 토트넘은 사우샘프턴과 개막전에서 4-1 대승을 따냈다. 개막전 대상에 손흥민은 “정말 중요한 승리였다”며 “승점 3을 얻으며 시즌을 시작하게 돼 좋다. 여러 선수가 득점에 관여했다”고 기뻐했다.

/연합뉴스



김주형 임성재 이경훈 김시우

김주형·임성재·이경훈·김시우 ‘무한 경쟁’ PGA 플레이오프 출전

페덱스컵 랭킹 125위까지 참가 12일부터 세인트루즈 챔피언십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정규투어를 마친 한국 골퍼들이 ‘무한 경쟁’ 플레이오프에 출전해 시즌을 마무리한다. PGA 투어 플레이오프 첫 대회인 세인트루즈 챔피언십(총상금 1500만달러)이 오는 12일(한국 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근교 TPC 사우스 윈드(파70·7243야드)에서 열린다. 우승 상금은 270만달러(약 35억원)에 달한다. 플레이오프에는 정규 투어 최종전인 원덤 챔피언십까지 페덱스컵 랭킹 상위 125위에 든 선수들이 출전한다. 한국 선수로는 임성재(24), 김주형(20), 이경훈(31), 김시우(27)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이들은 각각 페덱스컵 랭킹 10위, 34위, 40위, 48위로 정규 투어를 마쳤다. 플레이오프는 세인트루즈 챔피언십, BMW 챔피언십, 투어 챔피언십 등 총 3개 대회로 구성됐다. 세인트루즈 챔피언십 결과 페덱스컵 랭킹 70명만 다음 대회인 BMW 챔피언십(19~23일)에 진출한다. 55명은 탈락한다. 이후 상위 30명의 선수만 플레이오프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26~30일)에 진출해 PGA 투어 최강자 자리를 두고 겨룬다. 현재 페덱스컵 랭킹 톱5는 스코티 셰플러(미국), 캐머런 스미스(호주), 샘 번즈, 젠더 쇼플러, 패트릭 캔틀레이(이상 미국)다. 세계랭킹 1위와 페덱스컵 랭킹 1위 타이틀을 모두 가진 셰플러는 이번 대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다. 세계랭킹 3위이자 페덱스컵 랭킹 6위인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도 플레이오프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 세 번째 우승을 위해 출격한다. 시즌 최종전인 원덤 챔피언십에서 나란히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한 김주형과 임성재의 활약도 기대된다. PGA 투어는 이번 대회 파워랭킹에서 임성재를

9위, 김주형을 12위로 전망했다. 페덱스컵 랭킹 125위로 2년 만에 턱걸이로 세인트루즈 챔피언십에 출전하는 리키 파올라(이상 미국)가 플레이오프 도전을 어디까지 이어갈지도 관심사다. 한편 PGA 투어는 9일 LIV 골프로 이적한 선수들이 플레이오프 출전을 위해 낸 PGA 징계 중단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에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PGA 투어는 “그들은 플레이오프에 출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LIV 골프로 이적했다”면서 “그들이 플레이오프에 출전하는 것은 규칙을 따른 다른 PGA 소속 선수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앞서 PGA 투어로부터 플레이오프 출전 불가 통보를 받은 LIV 골프 소속 테일러 구치(미국·페덱스컵 랭킹 20위)와 맷 존스(호주·65위), 허드슨 스와퍼드(캐나다·67위)는 지난 3일 미국 법원에 PGA 징계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연합뉴스

영암해남 기업도시에 KPGA 프로골퍼 총출동

11일부터 사우스링스영암서 KPGA 코리안투어 대회 박상현·허인회 등 144명 출전

영암 솔라시도 기업도시 사우스링스영암 골프장에서 11일부터 14일까지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2022 코리안투어 대회가 열린다. 2021년도 이 대회 우승자인 박상현을 비롯해 김민규, 함정우, 황준근, 허인회 등 144명의 KPGA 프로골퍼가 우승상금 1억4000만원 등 총상금 7억원을 두고 사우스링스영암의 그린을 뜨겁게 달구게 된다. 이번 대회는 나흘간의 현장 열기가 TV 등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전남도내 첫 무료입장이 가능한 유관중 KPGA 경기로 치러져 지역 골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영암해남 기업도시 삼호지구는 지난 2019년 10월 사우스링스영암 골프장 45홀을 개장하고, 지난



박상현

3월 KPGA와 협약을 맺어 골프연습장, 선수훈련소, 명예의 전당을 조성하기로 하는 등 명품 관광레저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다. 인근에 조성 중인 런웨이(18홀) 골프장을 지난 2020년 10월 착공해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골프선수 해외유출 방지를 비롯해 골프 대중화로 질 좋은 골프환경 조성, 해외연수생(초·중·고)과 국내 남녀 프로, 일반인 대상 골프 프로스쿨 운영, 국가대표, 상비군, 체육특기생 육성 등 골프메카로 조성한다는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이며, 공정율은 46%를 보이고 있다. 김차진 전남도 기업도시사업관장은 “KPGA 대회가 오랜만에 전남에서 개최돼 감회가 새롭고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와 ‘전남관광 1억 명, 해외 관광객 300만 시대’를 성공시키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많은 골퍼들에게 전남의 맛과 멋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